'금생에 못하면 다음생에…' 로는 공부 못해

☞ 19면에서 계속

지고 망한다면 그건 안 하는 것만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못하게 될 거라면 못하게 하고, 되게 하려면 되게 하라고 놓으라는 겁니다. 양단 간에 '너만이 알아서 할 수 있다' 하고 해결을 봐야 그게 지혜로운 마음이죠. 그저 아무 거라도 하기만 해서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양단 간에 점을 찍으려면 그렇게 해서 놓는 겁니다. 그리고 우직스럽게 믿는 사람은 조급하지도 않아요. 왜 믿질 못하고 조급하게 구는지 모르겠어요. 어련히 할까 봐서, 어련히 자연적으로 안 생길까 봐서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렇게 거기다, 되고 안 되고를 다 맡겨 버리면 그 일이 되든 안되든 모든 것이 서로 상응하며 흥감하게 돌아가는 그 맛을 알게 될 겁니다.

절에 다니기가 왠지 싫어져요

문 스님께서는 평소에 불교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저도 그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전 전에 성당에 나간 적도 있고, 요즘은 선원에 나갑니다. 하지만 왠지 절에 가기가 싫습니다. 종교라는 이름으로 어떤 조직에 소속되어 특정한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왠지 어색하고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집안 식구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절에 간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절에 가지 않고 특정 종교나 조직에 속하지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절에 가기 싫어하고 특정 종교조직에 속하기 싫어하는 게 오직 제가 게을러서일까요?

답 우리들이 마음 공부를 하는데 있어서 공부라는 이름을 떠나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의 도리, 진리를 파악하고 배우는데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간혹 "제 주인공 찾으라는데 절에는 가서 뭘 해?"이러거든요. 그러나 절에 자주 오면서 공부에 전념하시는 분들하고 집에서 잠시 왔다 갔다 하는 분들하고는 달라요. 왜 다른 줄 압니까? 절에 가려는 그 마음이 어떻든 일단은 내 마음을 진화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왔다 가기만 해도 두절됐던 통신이 터지게 되죠. 어떤 때 보면, 보이는 생명이 아닌 영령들이 "나는 죽겠습니다." 하고선 신도님들과 같이 앉아있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은 모르는 거죠.

내가 왜 이런 소릴 하느냐 하면 광력이라는 것은 충전을 해야 공부가 더 잘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서로 공부하시는 분들끼리 대화를 할 때 또 입력이 되는 겁니다. 불쌍한 사람을 보면 "아이구, 저거 안됐구나."하는 생각이 듦으로써 거기 입력이 된단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 자주 다니시면서 내 마음 자리를 점검도 하면서 서로 키워나가면 좋을 겁니다. 그러니 어떤 한 특정종교에 속하거나 소속된다는 생각을 가지지 말고 한 계단 한 계단 벗어나기 위해서 거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같은 불편한 마음이 한결 편안해 질 겁니다. 마음 공부는 '이 생에 못하면 다음 생에 하지 뭐.' 이런 마음으로는 구경지에 들어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생에 벗어나야겠다는 마음을 확고히 해서 우리 다 함께 벗어나 봅시다.

주인공 반응없어 미워요

문 스님, 저는 열심히 이 마음공부를 하려고 노력하는 법우입니다. 스님께서 항상 너만이 네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자꾸 관하라고 하셔서 저녁이면 조용히 앉아 일념으로 들어가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의 근본에서는 통 반응이 오지 않는 거예요. 요즘 들어서는 주인공이 입에 붙어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주인공' 이라는 소리부터 나오는데요. 주인공을 불러 놓고 거기에 내 모든 불만스러운 마음들이 다 실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가 나고 주인공이 밉다는 생각이 봅습니다. 그렇게 증명을 하라고 보채도 대답도 없고, 반응도 하지 않으니까 미워지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우리 법우님이 그렇게 밉다고 생각을 하니까 영 통하지 않는 거지, 그것도 요량이 있어야 돼. 밉다고 그래 봤자 그놈이 그놈이니까, 거울을 보고 아무리 밉다고 해 봐, 거울 속에서 말이 있겠나. 그러니까 거울 속이든 뭐든 그저 아주 친근하게, 예전 사람들은 친근이라고 그러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걸 친근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말하는 건 친근이 그냥 친근이 아니라 공심(共心)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공심으로 들어가야지, 친근하게.

주인공이 반응이 없다고 해서 화가 나서도 아니 되지. 그건 화가 날 일이 아니니까. 일상 생활이 고정됨이 없이 그냥 찰나찰나 돌아가는 거야. 그건 당연히 그렇게, 좋든 싫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그냥 걸어야 할거지, 누구의 탓도 아닌 거고, 화날 것도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 나를 형성시킨 그놈을 이제 살살, 자문자답을 해서 끌어내는 것 뿐이야. 뭐, 화가 난다고 이러고 저러고 해 봤자 내 얼굴에 침 뱉기지 그건 소용이 없는 거야.

내가 이렇게 말해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듣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듣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실험을 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실험을 하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친근하게, 공심으로 오직 그 자리를 잡고 선 그냥, 즉 자기니까 '너와 나와 둘이 아니니까 너만이 네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할 수 있잖아.' 하고, '네가 정말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게끔, 알게끔 하는 것이 원칙 아니야?' 하고 잡고 늘어져야지.

요즘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친근이라고 하고, 또 공용(共用)이라고 말을 하지만 예전에는 용무(用無)라고 썼다고 봐. 그런데 용무라고 쓰면 무(無)자가 끄트머리에 붙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데서 용을 한다는 뜻인데, 공용이라고 그런다면 모든 것을 다 한다는, 함이 없이 한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말이 지금 시대에 따라서 그냥 거창하게 커진 거지.

예전에 어떤 사람이 이 공부를 하다가 그 자리가 발현이 돼서 나왔단 말이야. 그런데 둘이 아닌 걸 알면서도, 안에서 나온 걸 번연히 알면서도 둘이 아닌 도리를 알기 위해서는 증명을 하고 싶은 거야. 우리가 살아오던 습이 많이 있어 가지고 서로 응답을 하면서도, 통신이 되면서도 이게 확실히 나라는 걸 증명을 하라고 한 거야. 답답하니까. 그러니까 '네가 있다면 이 손을 들어라!' 하니까 강요하는 게 되잖아. 그러니까 꼼짝도 안 하다가, 잊어버리고 일어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냥 쏜살같이 손이 올라가더라 이거야. 그래서 내 안의 근본은 자기 조상이자 자기 자불(自佛)이자 주인공이자 모두가 둘이 아니라는 그 원리를 너무 잘 알게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밉다고 생각하면 그렇게만 퉁하니까 그것도 요량이 있어야 돼. 강요를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왜냐하면 정신계가 한 단계 위이기 때문이야. 나를 과거로부터 진화시키면서 형성시켜 온 자기인데, 지금 현재 나는 자(子)란 말이야. 그 한 단계 아래란 말이야. 형성시켜 온 자기는 '부(父)' 가 되고 현재 나는 '자(子)' 가 되지. 그런데 자식이 아버지더러 '이것 좀 올려 봐' 이렇게 한다면 그거 되겠어? 그러니 강요를 하지말고 그냥 친근하게, 그러면서 간절하게 하는 거야. 알았지?

마인드컨트롤과 '관' 의 차이

문 항상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부 해 나가다 보면 불교를 처음 대하는 이들과 만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살아나가는 방법과 저희가 살아가는 방법에 다른 점이 있다면 주인공을 알고 모르는 것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그는 항상 마인드 콘트롤로 모든 일에 결정을 내리고 살아간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들이 '주인공! 너만이 할 수 있어' 하며 살아가는 것과 그가 자기의 마음에 대고 물어보고 매사를 결정짓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답 이 마음 공부는 자유인이 되는 길입니다. 왜냐?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게 자유인입니다. 그래서 이게 악이냐 선이냐 한다면,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닙니다. 그 두 가지를 전부 다 놨을 때, 그 두 가지가 다 없는 데서 내가 자유스러운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예가 있었어요. 고개가 돌아가지 않고, 그냥 멈춰 있더라고요. 고개가 돌아가지를 않으니까 그게 얼마나 괴롭겠어요, 아프고. 그런데 그 사람이 고개를 돌린 채 나한테 와서 그냥, 부처님한테 가서 절을 하는 거라면 말도 안 해요. 그런데 고개도 안 돌아가는 사람이 나한테 절을 얼마나 공손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했죠. 거기는 내가 깔고 앉은 방석밖엔 없는데, 참,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나같이 무지랭이 같은 사람 앞에 그것도 처사가 저렇게 지극하게 절을 하니 세상에 참, 그렇게 아름답게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는 "왜 그렇소?" 그러니까 고개가 돌아가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고 그냥 갔어요. 그런데 버스를 타고 가는데 누가 옆에서 탁 치니까 가만히 좀 있으라고 그러는데 그냥 고개가 휙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고개가 맘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무얼 하고 자시고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서로 사랑하고 자비스럽게 사랑하는 그 마음이 진정한 것이죠.

그러니까 둘이 아니게 볼 수 있고 둘이 아닌 행을 그대로 한다면, 모두가 나 아님이 없고, 내 아픔이 아님이 없고, 내 자리 아님이 없으니 하나도 버릴 게 없고, 나다, 너다 할 것이 없이 바로 모두 나이기 때문에 내가 괴롭지 않기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괴롭지 않기 위해서 상대방의 병이 낫는 겁니다. 이 뜻을 아시겠죠?

그래서 부처님 법이란 묘하고 슬기롭고 정말 아무것도 붙지 않는 그 자리에서 눈은 샛별같이 떠지고 한 생각은 불끈 솟는 무조건적인 생각만이 건질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크고 작고가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꼭 하겠노라 하고 주먹을 불끈 쥘 때 마음 속에서 정말 처절한 눈물이 흐르지마는 눈은 더 똥그랗게 떠지고 눈에서 불이 번쩍 나는 그러한 무조건적인 생각이 생명을 살리는 힘입니다.

담 넘어가듯 주인공이 해 주겠지 하는데 그렇다면 주인공이 따로 있고 여러분이 따로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혜 물리가 터지면 그걸 알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네가 있다는 것을 네가 증명을 하는 거지, 그게 관입니다. 또, 지금 내가 무조건이라고 했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이거는 꼭 해야만 되겠다 할 때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거기에는 아무 이유가 붙지 않아야 된다 이 소립니다.

그래서 더불어 일체가 하나임을 모르고 내가 혼자라는 생각, 나만의 문제에만 끄달리고 사는 것과, 일체가 주인공의 나툼임을 알고 믿고 관하는 그런 삶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량으로 붙들거나 매이지 말고 그 자리에 일체를 놓고 가는 그런 떳떳한 자유인의 삶을 살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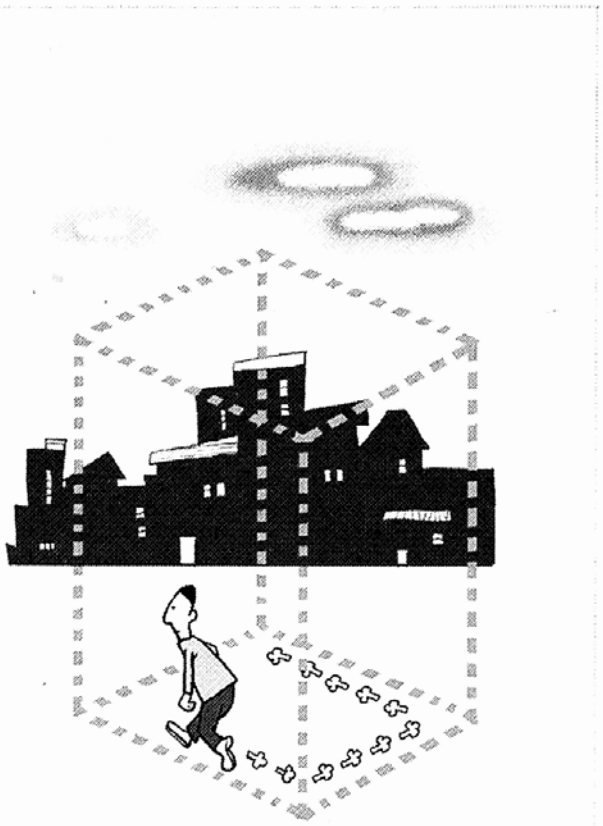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마음은 체 없어 걸릴 것이 없어요

악도 선도 다 놓았을 때 자유로워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天蔘 토종 오가피의 신비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 광 수 氏



— 재배자가 직접 만들어 화제 —

舊소련에서는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오가피를 복용시켜 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용했던 소련산 가시오가피는 그 유효성분이 우리나라 토종오가피의 25%에 불과했습니다. (노벨수상자인 독일 와그너박사의 논문에서…) 왜냐하면 오가피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奉得一把五加 不用金玉滿車
(영득일파오가 불용금옥만차)
하춤의 오가피를 얻으니 한마차의 금옥보다 낫구나…
(本草綱目)

◐延年 不老 仙經藥也(연년 불로 선경약야)
(오가피를 먹어) 수를 더하고 늙지 않으니 실로 신선의 약이로구나…
(東醫寶鑑)

◐Acanthopanax (오가피의 학명)
'아칸토'는 가시나무를 뜻하며 '파낙스'는 만병을 치유한다는 뜻으로 만병을 다스리는 가시나무란 이름을 가지고 있다…
(공주교대 조선행박사)

■융내낼수 없는 것이 있다!
수신 토종오가피는 TV건강문화(i-TV 2000년 1월15일) KBS "6시 내고향", "나의 영농체험"에 출현한 17년간 오가피를 키워온 재배자 성광수씨가 직접 재배한 100% 국내산 토종오가피로 만듭니다. 가오가피나 수입 오가피로 만든 제품과 비교하지 마십시요.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시면 오가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오가피 건강상담 : 02)447-0047

대한불교 조계종 불지촌 개원 인사 말씀

귀의삼보 하옵고
신도님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함이 깃들기를 기원하오며 몇 말씀 드리고자합니다.
금번에 소납이 포교원력으로 서울시 강남구 청담 1동에 대한불교 조계종 불지촌이라는 교당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불지촌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운영하고자 하오니 신도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소개 있으시기를 앙망하나이다.
특히 불지촌에서는 선기공 정각회의 활동으로 신도님의 건강상담에 주력하고자 하오니 많이 알려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불지촌 일과표 문의처 02-3444-4376

AM 10:30~AM 12:00 사시불공						
역학 개인지도반 : 매일 오후 12시 부터 오후 1시 30분 까지 사주정설 강좌와 관상학 강의						
오후4시 부터 오후5시 까지	기수련강좌	역학강좌	선체조	범패강좌	선체조	다도법회
	月	火	水	木	金	土
건강상담개인지도 매일 3명으로 제한, 1개월 코스, 일주일에 3회 수련 지도 오전 9시~10시 30분 [1명] 오후 3시~4시 30분 [1명] 오후7시~8시반[1명]						
PM 6:30 ~ PM 7:00 저녁예불						

서울시 강남구 청담 1동 126-64F TEL : 02-3444-4376
· 홈페이지 : WWW.BULLJICHON.COM 한글 도메인 주소 : 수산스님.COM
· 오시는 길 : 영동대교 입구와 청담사거리 사이 프리마 호텔 맞은편 조흥은행 골목길에 들어서면 불지촌이 보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불지촌 주지 배수산 합장